

전남도 내년 공무원 1100명 뽑는다

7급 42명·9급 900명 ... 광주시 300명 내년 초 결정

국가공무원 6023명 공개채용 ... 36년만에 최대 규모

전남도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7급 행정 20명, 수의직 22명 등 42명을 포함해 9급까지 모두 900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200명의 소방직 공무원을 뽑을 예정이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 과정에서 총원될 가능성이 높을 인원은 다소 유동적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인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내년 1월 말 채용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며, 채용 인원은 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날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을 6023명으로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공채 선발규모를 8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올해 5372명보다 12.1%(651명) 늘어난 것으로,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 수요를 초과해 선발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 7급 730명, 9급 4910명이다.

다. 5급으로는 행정직군 235명·기술직군 64명·지역구분모집 39명·외교관후보자 4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7급으로는 행정직군 530명·기술직군 168명·외무영사직 3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4120명)보다 선발인원을 19.2% 늘린 9급 공채에서는 행정직군 4508명, 기술직군 402명을 뽑는다. 장애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2배가 넘는 6.5%(269명)를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도 법정 의무선발비율(2%)을 초과한 2.7%(133명)를 뽑는다. 내년 국가직 공채에는 부처별 인력운영 상황을 반영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5급 방

재안전직렬을 최초로 선발,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해 7급 공업직렬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16명 늘렸고,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출입국관리직 선발 인원을 210명(작년 56명)으로 확대했다. 교정직 공무원도 교정시설 수용 인원 증가 등을 고려해 9급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520명 늘어난 957명으로 정했다. 이번 공고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앞당겨 발표한 것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은 내년 1월 초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통해 공지된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동서화합 프로젝트 전남 첫 결실

해남서 천사 보금자리 1호 준공

전남과 경북에서 1004명 이상 정기 후원자를 모집해 저소득층 어린이를 돕는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가 전남에서 첫 결실을 거두었다. 전남도는 7일 해남군 해남읍에서 프로젝트 추진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 보금자리 1호 주택 완공식을 했다. 설계는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다락 공간을 만드는 등 어린이 눈높이와 정서에 맞췄다. 선정된 가정은 부모와 7남매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참고 겸 주택에서 살다가 소유자의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됐다.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낡은 천정집에서 외삼촌 가족 등 모두 13명이 함께 살아왔다. 영·호남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경북도청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시작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손정의, 트럼프 만나 500억 달러 투자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미국에 500억 달러(약 58조 55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손 마사요시(孫正義·한국명 손정의)가 사장으로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7일(현지시간) 도쿄주식시장에서 6% 상승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손사장이 6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기자들에게 투자약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지자체 의견 커 험난

市, 내년 7월까지 조정안 마련

광주시가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자치구별로 의견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이달 안으로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7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와 자치구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2회 광주공동체 상생회의’를 하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자치구는 지역별 특색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웠다. 동구는 단순히 인구를 주고받는 경계조정이 아닌, 구별 특색을 살린 자치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구는 토지·대로·하천 등 지형만을 고려한 단순한 경계

조정은 주민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정치권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동의해야 주민설득도 가능하며 용역과정에서 주민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정치권의 사전 호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산구도 경계조정을 잘못하면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권의 동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북구는 정치적인 논리보다 미래 공동체

형성과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다양하게 제시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구도심 공동화대책과 구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계조정안을 마련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6월경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조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에너지밸리 전용산단 공사 본격화 도시첨단산단 4406억 들여 12일 착공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감도)가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전력 본사와 인접한 광주 남구 대촌동에서 오는 12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을 갖는다.



도시첨단산단은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세계 3대 전기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지난 7월 공사에 들어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광주바이오에너지 R&D센터와 함께 에너지밸리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시첨단산단은 1단계 48만5000여㎡ 규모와 인근 제2단계 120만㎡ 규모의 지방산단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성되며, 여기에는 효성, LS산전 등 대기업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등이 입주하게 된다. 1428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은 2019년 완공되고, 지방산단은 2978억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지역에너지 기업인 전력R&D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3대 전기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을 유치해 내년 상반기에 광주분원 건립공사를 착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자체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에는 전력변환 연구동·HVDC분야 시험동·공급동 등이 들어서며, 전력변환·DC(직류) 송배

전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력설비 시험·인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유치해 지난 7월 광주분원인 광주바이오에너지 R&D센터를 착공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설립은 제주·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광주분원은 바이오에너지와 에너지저장 장치(대용량 2차 전지) 분야 등 핵심 기술의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광주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세계 10대 에너지기업인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공동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250개사를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들어 지역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한전본사가 공동혁신도시로 옮긴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LS산전, 효성, 세방산업 등 4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액은 2601억원으로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43개사 중 20개 기업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적조·고수온 피해복구 122억 지원

지난 여름 적조와 고수온으로 발생한 양식 어패류 집단폐사 복구계획이 확정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122억여원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59 어가에 국비 39억원, 도비 8억 5000만원, 시·군비 8억6000만원, 용자 40억원, 자부담 26억원이 적조 피해 양식장 어패류 입식비 등으로 투입된다. 전남도는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

보해 긴급 복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액이 총 236 어가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 전남에서는 여름 동안 폭염으로 바다표층 수온이 섭씨 28~30도로 올라가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한 데다 적조까지 겹쳐 여수, 고흥, 장흥, 강진, 완도, 진도 등 6개 시·군 523 어가에서 어패류 4727만 마리가 폐사해 380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64 어가는 수협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